

# 전북도, 목재문화지수 '우수'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펼쳐... 전국 평가서 기관 표창 받아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해 멋과 전통을 살린 전북도가 또 한번 상을 거머쥐었다. 전북도는 10일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0년 목재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대 한옥 정문 및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에 전통을 중시한 친환경 목재의 만남으로 이뤄진 목재물은 전북도만의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지속적인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함께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로 전국 도 단위에서 강원도(83.8점)에 이어 2번째(73.77점)로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주, 완주, 고창군 등과 함께 전통 자산인 한옥을 기반으로 한 목재문화와 목공예 체험 등 산림교육을 위한 정책(조례 6건, 규칙 1건)을 마련하며, 도민들의 삶 속에 목재가 항상 함께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올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을 완주에 유치해 친환경 목재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농·산촌 난방비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난해 말 기준 2,196대를 보급하는 등 목재에너지 부문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도내 산림면적은 44만3,000ha로 전국 7% 수준이며, ha당 임목축적은 126.9m<sup>3</sup>으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해 임목 자원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목재생산은 221만7,000m<sup>3</sup>으로 전국 8.9%를 공급하고 있으며, 목재공급은 집필프용, 제재용, 바이오매스용, 표고 자목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산과 더불어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66억원을 투자, 34개 업체를 지원하며 목재생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목재생산·가공 업체 518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산목재 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 7년간 매년 2억씩 꾸준히 투자하는 등 국산 목재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목재사용권장 행사 및 캠페인을 1,966회를 개최하며, 4만1,168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목재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완주 대이수목원, 순창 산림박물관, 무주 자연학습원 내 목재 체험장과 장수 방화동휴양림, 임실 사선대 내 목재문화 체험장을 거점으로 도민들과 도내를 찾는 국민에게도 다양한 목재체험을 제공하며, 올바른 목재문화의 정착과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해온 점 등이 높게 인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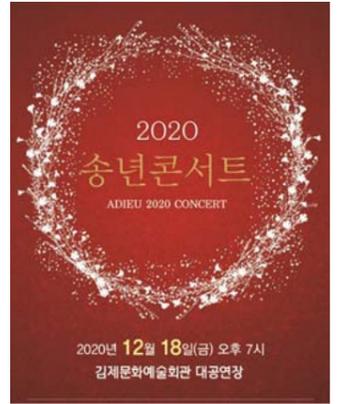
전북도는 목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운영(3개소) 중인 목재문화 체험장 외에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에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읍시 쌍안동 일원에 신규로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고해중 전북도 산림복지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문화 확산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된 목재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김제문화예술회관, 18일 '송년 콘서트'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수칙 준수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해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 드리고자 오는 18일 오후 7시 '2020 송년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전국을 떠돌던 전문유랑집단을 모티브로 한 '조선서커스 솟대쟁이패'의 길놀이 풍물을 시작으로 버나 죽방울 서커스, 살판&쌍줄놀이 등 기예에 가까운 전통 연희를 집대성한 차세대 한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젊은 소리꾼 국악인 박정미와 가수 진성도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서원대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아쉬웠던 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이행하다 보니 제한된 좌석만을 운영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

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nj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도태 기자

## 독립운동인명사전 1·2권 발간

가재년부터 김기준까지 1203명 수록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203명의 활동과 생애가 담긴 책이 나왔다.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1~2권)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1~2권)에는 2018년까지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가재연'부터 '김기준'까지 1203명이 수록됐다.

이번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한국근대사 전공자 120여 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따라서 이번 사전 편찬은 독립운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

독립운동가가 걸은 삶의 역정과 독립운동 활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그동안 독립기념관이 수집한 사진과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애국지사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전은 일제 강점기 고난의 시기에 겨레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삶과 정신을 담고 있다. 이로써 그들이 걸은 삶의 궤적 속에서 자주와 독립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공존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은 독립운동가 전문 사전으로 2018년까지 서훈을 받은 모든 독립유공자 수록을 목표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그동안 독립운동가임에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일대기까지도 조명함으로써 기존 백과사전이나 인물사전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이미 '한국독립운동사사전(총론)'(전2권, 1996)과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전5권, 2004)을 간행했다.

그 후속편으로 '한국독립운동사사전(인명편)'을 기획하던 중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발간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1~2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25권을 편찬할 계획이다.

/뉴시스

## 來 創新開

내년 사자성어 '개신창래(開新創來)'  
한국국학진흥원, 공모 통해 선정

한국국학진흥원이 2021년의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매년 기관 내외에 공모 절차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과 운영철학을 담은 사자성어를 선정해 왔다.

2021년 사자성어는 총 89건(내부 17건, 외부 72건)을 접수받았고, 시의성과 완성도,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 '개신창래(開新創來)'로 최종 선정했다.

'개신창래(開新創來)'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의미다. 직면한 현실을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 선정됐다.

조현재 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함께 위기에 맞서 정진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사자성어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진 남원 문화예술사업 '별 탈 없이'

기획공연, 방역수칙 준수 하 현장서 추진·일부 공연은 비대면으로

남원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공연과 문화예술단체 각종행사,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사업비 32억9,2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획공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부 연기·취소했으나 관객 수 제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현장공연을 추진하고, 일부 공연은 비대면 온라인공연으로 진행했으며,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시르렁 실경! 톱질이야!', 수요상설공연 전통소리창, 광안투의 반풍경, 국악플러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인형극 안녕!도깨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춘향미술대전, 춘향국악대전, 판소리경연대회 등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와 남원문화원사업, 남원예술제, 국제도에 캠프, 남원문화대학,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동학문화제, 문화재 활용사업 등 다양한 문화행

사에 예산을 지원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했다.

특히, 사업들은 행사규모 축소, 마스크, 손소독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일부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기획전시, 청소년 진로아트캠프,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왕 선발전, 독서동아리 활동 등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